

Final Project

LanTour



조장 이장근

팀원 곽채호, 양나림, 이수연, 최태준



01

팀원 소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한 팀원들을
소개합니다.

02

기획 의도

LanTour를 기획하기까지
시장 조사와, 경쟁사와
차별화된 서비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03

기능 소개

LanTour에서 어떤 기능들이
사용되었고 그 기능을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소개합니다.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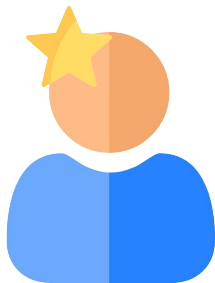
느낀점

팀원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점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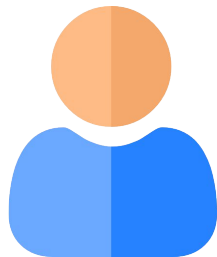
A romantic scene of a couple in Cappadocia, Turkey, watching a massive hot air balloon festival at dawn. The woman, in a white floral dress and straw hat, stands with her back to the camera, looking out over the unique rock formations. The man, wearing a hat and a backpack, stands next to her, holding a camera. The sky is filled with dozens of colorful balloons, and the landscape is dotted with the iconic 'fairy chimneys' of the region.

T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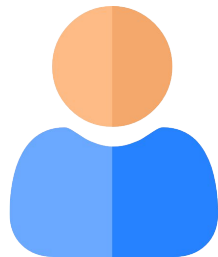
멤버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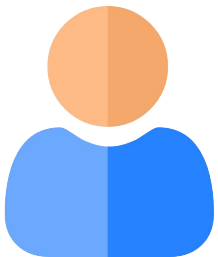
이장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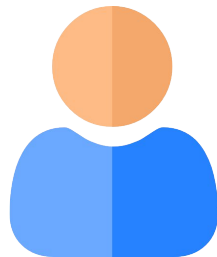
곽재호



양나림



이수연



최태준

SUMMARY



기획 의도



비대면 콘텐츠 수요 증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20년 한 해에만 10억명이 넘는 국제 관광객이 줄었고 예상 피해액은 약 1조 3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계획만 할 뿐, 실행에 옮기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여행과 IT를 접목시켜 ‘비대면 온라인 투어’라는 새로운 여행 콘텐츠를 제작하여 사용자들의 갈증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국내 여행 수요 증가

코로나19로 인해 여행 산업이 침체되었지만, 반대로 국내 여행에 대한 수요와 관심은 높아졌습니다. 이에 저희 LanTour는 국내 숙박 예약, 교통(항공 및 렌터카) 예약, 축제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 전세계 숙소 예약
- 온라인/오프라인 체험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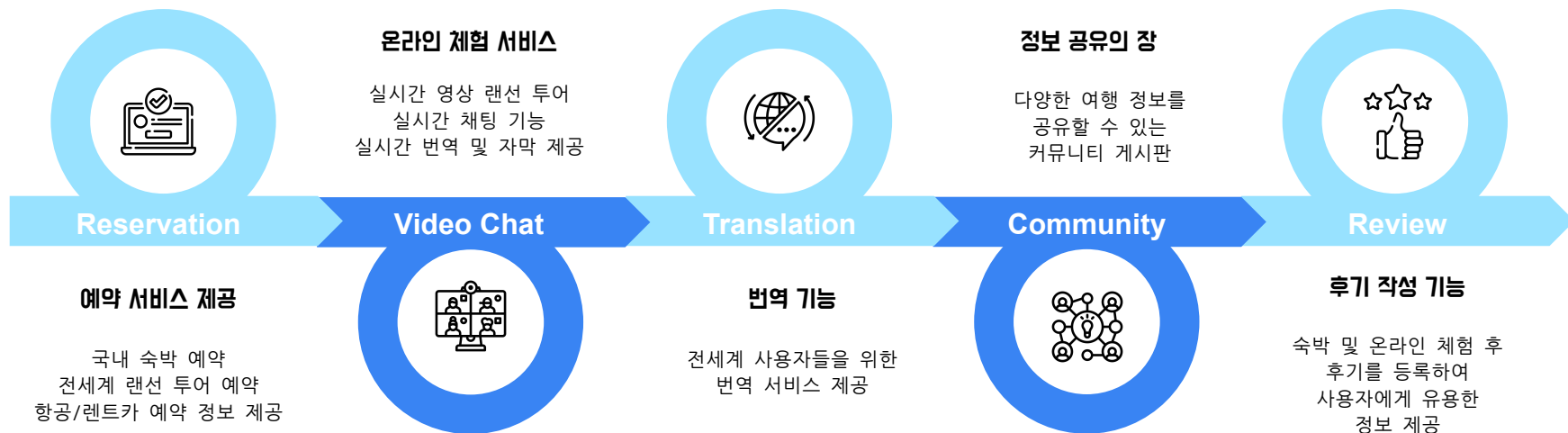


- 전세계 숙소 예약
- 최저가 예약 서비스



- 전세계 숙소 예약
- 항공 예약 서비스
- 렌터카 예약 서비스
- 오프라인 체험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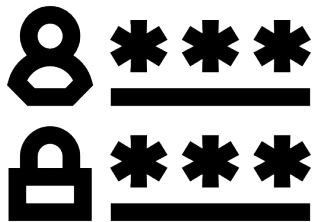
LanTour



A photograph of an airplane wing and tail against a sunset sky with clouds. The wing is white with a red and blue tail fin. The sky is a mix of orange, yellow, and blue, with a layer of white clouds below the pla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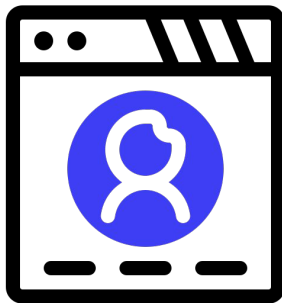
FUNCTION

기능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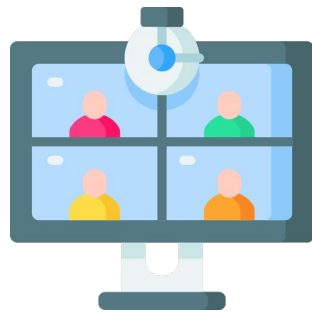
회원가입

Spring Interceptor,
Spring passwordEncoder
를 통한 보안 강화



SNS 로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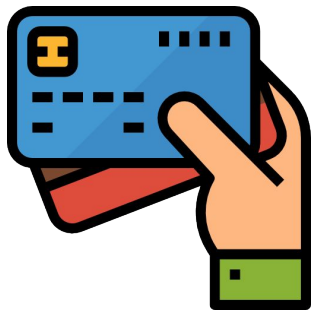
네이버, 카카오, 구글
auth로 구현



Web-RTC

Web-RTC 화상채팅
실시간 비디오, 오디오 송출
1:N 형태로 구현

기능 소개



결제

아임포트 API를 활용한
결제 구현



공공 API

공공 API를 활용한
항공, 렌터카, 축제 게시판



캘린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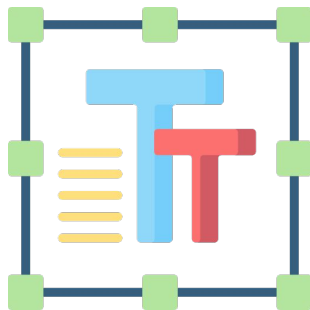
FullCalendar API를
활용한 일정 관리 기능

기능 소개



채팅

Socket을 이용한
실시간 채팅 구현



텍스트 에디터

Summernote API를
활용하여 글 작성 시
텍스트 에디터 제공



차트

chart.js API를 활용한
차트 기능

기능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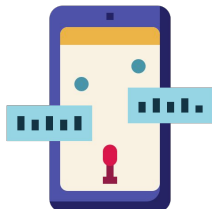
메일

SMTP로 구현
이메일 인증 시 사용



지도

KakaoMap API
위치 정보 제공



음성 인식

TTS API
음성 인식 및 번역하여
실시간 자막 제공



다국어

Google API
사이트에 다국어 언어
제공

COMMENT



느낀점



이장근

“

두번째로 맡은 프로젝트 팀장이었습니다.
지난 세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잘 해나가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세미때는 불필요하게 회의도 많이하고, 프로젝트 시작할 때의
기본 세팅을 부족하게 한 것이 후반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보완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팀에서는 회의는 정말 필요할 때만
잠깐 진행하고 기본 세팅을 좀더 중시해서 준비했습니다. 지난번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잘 될지 불안함도 있었지만 팀원들이
다 잘 도와준 덕분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가장 기억에 남는것은 음성인식-번역-TTS 세가지
기능을 하나로 합쳐서 만든것인데 api의 모듈화의 중요성과 이런
자잘한 개발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번역 프로그램이랑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사실 번역된 프로그램의 영어실력이 저보다 뛰어나서 분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소감을 마치면서 우리 팀원 모두와 좋은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

느낀점



곽재호

“

세미프로젝트와 파이널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건 개발실력도 필요하지만 제가 모르는 부분이 어딘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것을 찾다가 질문해야될 타이밍에 질문을 못한 경우가 많아서 제가 해야하는 날짜에 못한적이 많아 질문과 의사소통능력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많은 자료를 보면서 그것들을 보면서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았고 아직 내가 한참 부족한것을 느꼈습니다.

이 수업을 받기전까지는 팀 프로젝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귀한 경험을 한것 같습니다.

팀원분들에게는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정말 좋은 팀원분들 덕분에 프로젝트를 잘 마칠수있게 된 것 같습니다.

”

느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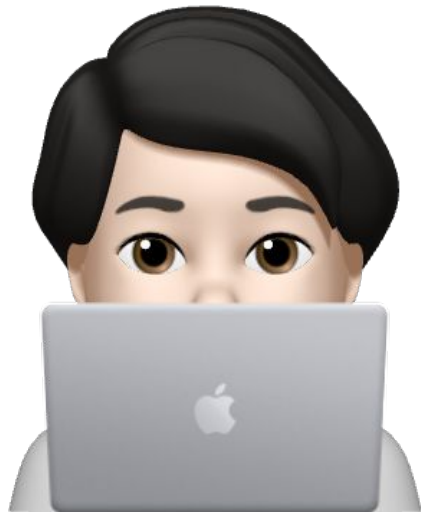
양나림

“

파이널 프로젝트인 만큼 실력적으로도 좀 더 향상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역시나 배운 내용이었지만, 제가 직접 개발해보고 기능들을 추가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 중 제일 어려운 점은 제 실력이 기능을 추가하는데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참고 자료와 예제들을 봐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팀원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 도움의 과정에서도 팀원들에게 문제해결방법을 배웠고, 저에게 부족한 실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채워갈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팀 프로젝트인만큼 협업과 의사소통에 중요하게 생각했고, 팀원들 모두 의사소통부분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팀원들이 채워주며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뜻 깊은 프로젝트였습니다.

”

느낀점



이수연

“

이번 파이널 프로젝트는 세미 프로젝트의 경험 덕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저번과 달리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 코드가 훨씬 간결해지고 충돌이 잘 나지 않아서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간이 세미 프로젝트보다 좀 더 길어서 조금 지치기도 했지만 더 다양한 기능을 시도할 수 있었고 오류를 수정할 시간이 충분해서 좀 더 퀄리티 높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벌써 8개월이 지나 수료라는게 아직 믿기지 않지만 선생님과 그리고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팀원들 덕분에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

느낀점



최태준

“

두번째 웹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첫 프로젝트에 참가했던것이 어렵듯이 생각이 난다. 첫 프로젝트에 참가했을때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한 느낌이었다. 그래도 좋은 팀원들과 같이 해결하면서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 두번째 프로젝트에서도 첫 프로젝트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지만 그래도 처음은 아니었던지라 덜 막막한 느낌이었다. 프로젝트 시작 당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한것이 팀원이 세미와는 달라졌다는 것이다. 대부분 처음 만나는 팀원이다보니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어디서 어려움을 느끼는지 혹은 혼자서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잘 몰랐으며 내가 팀에 민폐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좋은 팀원을 만나면서 프로젝트 진행에 어려움이 별로 없이 수월하게 진행된 것 같다. 프로젝트 기간이 끝나면 항상 남는것은 개운함이 아니라 찝찝함 같다. 좀 더 노력했다면 더 좋은 퀄리티의 프로젝트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팀원 모두 열심히 했다고 자부할 수 있다.

”

Q & A





Thank You